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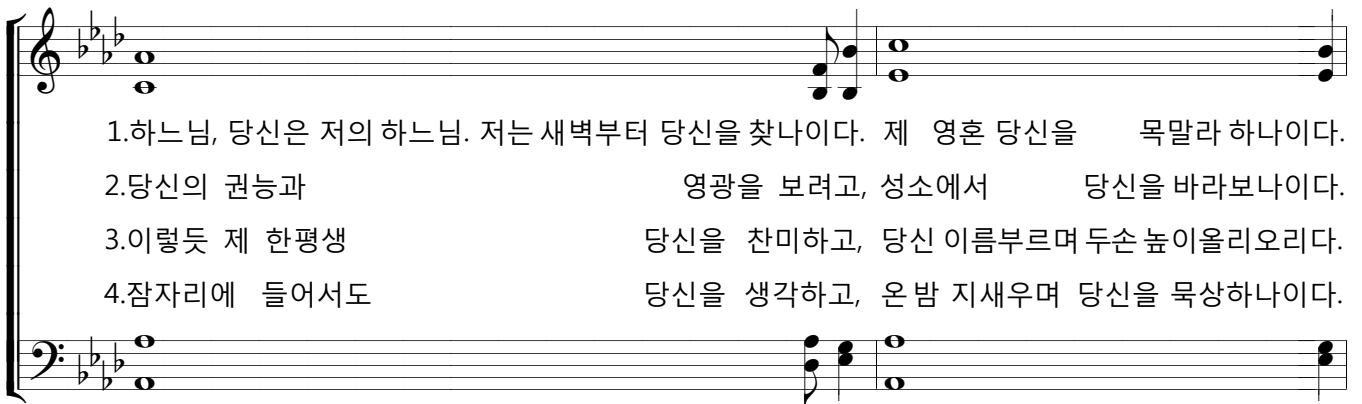
연중 제 32 주일 (가)

2020. 11. 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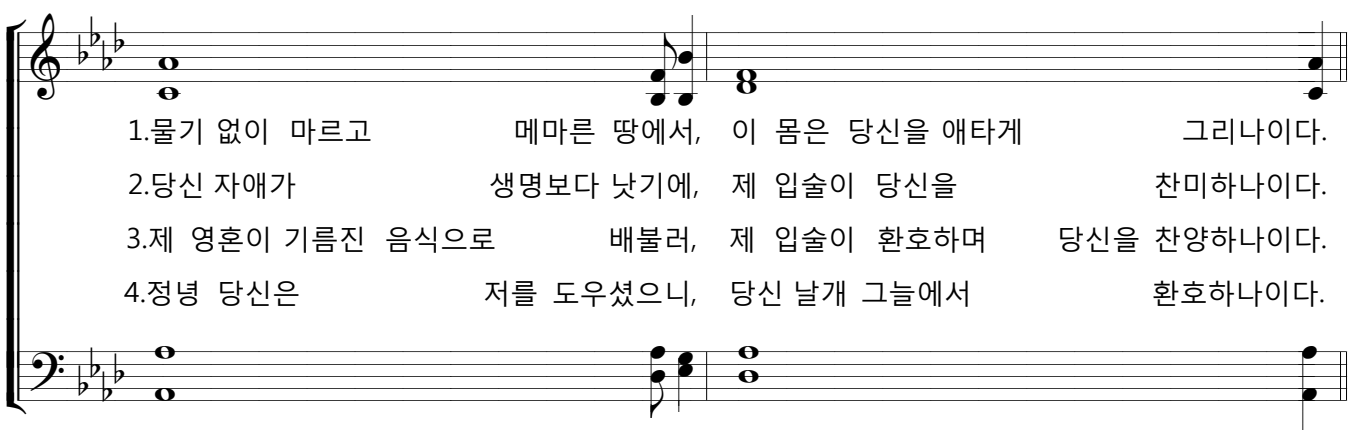
시편 63 (62), 2. 3-4. 5-6. 7-8 (◎ 2ㄷ)



후렴. 주 님, 저 의 하 느 님, 제 영 혼, 당 신 을 목 말 라 하나 이 다.



1.하느님, 당신은 저의 하느님.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.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.
 2.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,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.
 3.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, 당신 이름부르며 두손 높이올리오리다.
 4.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, 온 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.



1.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,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.
 2.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,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
 3.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,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
 4.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,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.